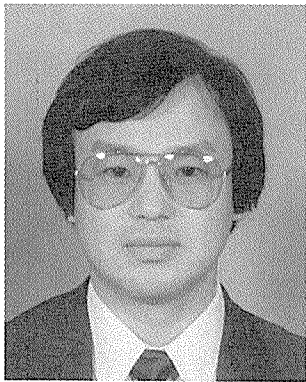


'93년 하반기 국제유가 전망



김인길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분석실>

4/4분기중 이라크의 석유수출이 이루어지면 수급균형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50만B/D 이상의 공급부족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OPEC의 결속력 이완에도 불구하고 4/4분기에는 OPEC 평균 17~19달러의 강세가 예상된다.

국제 유가 (OPEC 평균 기준, 이하 같음)는 3월 이후 5월 중순까지 배럴당 17.2달러 내외의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5월 하순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 특히 제93차 OPEC(석유수출국기구) 총회(6/8-10) 이후 하락폭이 확대되어 6월 말에는 배럴당 15.8달러까지 떨어졌고, 7월 들어 유가 하락세는 가속되어 OPEC 평균 15달러를 맴도는 수준까지 폭락하였다. 이는 걸프 사태 발발 직전인 1990년 7월 이래 최저 가격을 기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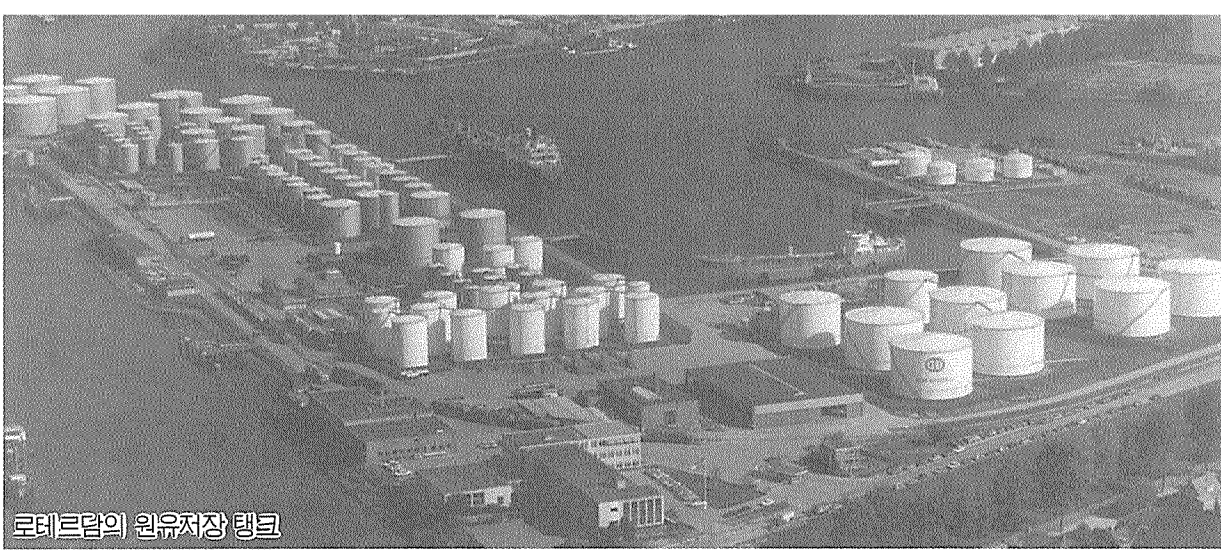
최근 유가 약세는 공급 과잉, OPEC 결속력 이완, 심리적 과민 반응의 3가지가 복합작용한 데 기인한다. 2/4분기 OPEC 원유에 대한 수요는 23.6 백만b/d인데 비해 OPEC 원유 생산은 24.2 백만b/d이었다. 이에 따라 국제 석유 시장은 60만b/d의 공급 초과가 발생하였다.

非需期 수급 약화에도 불구하고 OPEC 결속력은 크게 이완되었으며, 석유 시장은 OPEC의 가격 유지 또는 회복 능력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시각이다. 걸프 사태 이전의 생산 능력을 회복한 쿠웨이트가 쿼타 체제를 이탈하고, 증산 방침을 표명한 데다가 또 이라크 석유 수출 재개 이후의 쿼타 재조정을 대비한 각 회원국의 입장과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7월 들어 구조적 약세 요인(공급 과잉, OPEC 결속력 이완)에 가세하여 유엔 安保理-이라크간의 석유 회담(7월 7~15일 개최)과 관련, 이라크 석유 수출 재개설을 재료로 한 심리적 약세요인이 유가 하락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7월 유가는 이라크 석유수출 재개에 대한 낙관과 비관론이 교차하면서 하루 걸러 50~70센트의 등락을 반복하는 투기적 시황이 나타났다.

3/4분기 OPEC 원유에 대한 수요는 24.0 백만 b/d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OPEC 생산은 24.5 백만b/d가 예상됨으로써 전체 석유 수급은 50만 b/d의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도 석유 시장의 최대 변수중 하나는 이라



로테르담의 원유저장 탱크

크 석유 수출의 재개 시점 및 그 규모이다. 이라크 석유 수출 재개는 유엔 安保理「경제 제재 위원회」에서 2개월마다 검토되는데, 지금까지는 이라크의 정전 협정 불이행을 이유로 거부되어 왔다. 종래에도 국제 석유 시장은 이라크 석유 수출 재개에 관련된 회의를 전후하여 단기간 동안 1달러 내외의 투기적 변동을 나타내곤 하였었다('92년 6월, '93년 3월 및 5월 등).

유엔-이라크 석유 회담은 지난 7월 26일 현재 잠정 중단 상태이며, 회담 재개 일정은 미정이다. 이라크 미사일 기지에 대한 감시 카메라 설치 문제는 진전이 있으나, 이라크의 「UN 종전 결의안」 준수는 미흡하다. 유엔 안보리 「경제 제재 위원회」는 7월 21일, 이라크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검토 회의는 오는 9월 중순에 개최될 예정이다.

OPEC는 지난 7월 28일, 이라크 석유 수출 재개에 대한 임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8월 중순이후로 연기되었으며, 회의 성사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경제 제재 위원회의 7월 21일 결정으로 이라크 석유 수출이 조기에 이루어질 우려가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OPEC 일부에서는 9월 25일 감시위원회를 앞둔 상태에서 별도의 임시 총회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라크의 석유 수출이 재개될 경우, 석유 시장에는 0.5~0.7 백만b/d의 추가 공급이 발생된다. 그러나 석유 수출 재개에는 2개월여의 준비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라크 석유 수출은 아무리

빨라도 4/4분기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6월말부터 7월에 걸쳐 이라크 석유 수출 재개 임박설을 근거로 1.5달러 정도 급락한 유가는 심리적 과민 반응으로 보이며, 조만간 급락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3/4분기는 수급 구조상 50만b/d의 공급 과잉이 예상되며, 수급에 큰 영향을 줄 돌발 사태는 예상되지 않는다. 아울러 유가 회복을 위한 OPEC의 적극적 노력도 크게 기대할 수 없다. 3/4분기에는 OPEC 평균 16달러 (Dubai 15달러) 내외의 약세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4/4분기 OPEC 원유에 대한 수요 (Call On OPEC)는 25.7 백만b/d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OPEC 생산은 쿼타 증대 내지 초과 생산, 이라크의 석유 수출 재개 (50~70만b/d)를 감안하여 25~26 백만b/d가 예상되므로 4/4분기 석유 수급은 균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라크의 석유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0만b/d 이상의 공급 부족이 우려된다.

다시 말해서 4/4분기는 이라크의 석유 수출이 이루어지면 수급 균형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50만b/d 이상의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쿼타 재배분을 둘러싼 OPEC 결속력 이완에도 불구하고 4/4분기에는 OPEC 평균 17~19달러 (Dubai 16~18달러)의 강세 유가 수준이 예상된다. ♠